신앙을 지킨 의인들

신학박사 조 덕운

[누가복음 18:7-8]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 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 누구을 위해 복수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 장에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탄원함으로써 재판관이 이 여인의 절실한 간구함에 설득되어 그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해 준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신의 선택받은 자녀들의 탄원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원수 갚는 일을 하시는 의로우신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므로 과거 구약 시대에 여러번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원수 갚은 적이 있으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들 간에,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원수처럼 대하더라도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자신이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위하여 원수 갚는 공의로우신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복수 하십니까?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원수 갚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그분의 자녀가 된 '선택받은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 자신의 사회와 국가의 처지, 온 세계의 처지에 관하여 하나님께 탄원함으로써 그 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원수에게 징벌하시고 복수하시도록 하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이러한 복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이러한 자신들의 특별한 위치를 잘 깨닫고 자신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공동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탄원할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내가 돌아올 때에 이 땅에서 참 믿음을 보겠는가?

그런데 8 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과연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볼 것인가?"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것보다는 오늘날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약간은 비관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들리는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이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원수 갚는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과연 순수한 믿음을 잘 지켜낼 것인가?" 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과연 나를 반겨 맞으실 것인지,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의 신앙은 내가 주었던 참된 진리의 신앙이 아니므로 너를 환영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자성하고 회개함으로써 처음 믿음, 부패하기 전의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순수한 신앙,

이기심과 자신의 편견, 고집으로 타협하기 전의 신앙, 사도들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에 기초한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분이 사도 바울인지 아니면 다른 사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분은 주 예수님의 이런 도전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11 장에 구약 시대에 순수한 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모범이었던 의인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들, 모세,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의 창녀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여러 대언자들입니다. 여기에 열거한 사람들 이외에도 대언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들 칠천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챤들이 신앙을 굳게 지켜서 핍박과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 서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비교적 핍박이 극심하지 않지만 중국과 중동 회교 국가들에 있는 신자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이들을 핍박하는 악한 정권들의 몰락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 갚는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누가복음 18 장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과부처럼 귀찮을 정도로 매일 그러한 간구를 하늘의 보좌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3. 우리 신앙을 부패시키는 것들

[히브리서 12:1-2]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2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 장에 기록된 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의 증언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신앙의 증인들에 더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너머 승리의 기쁨과 자신의 희생으로 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인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커다란 기쁨과 보람을 위하여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견디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면,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나의 작은 십자가 지도록 힘을 주십시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21 세기를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키며 우리 사회를 부패시켜 사탄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악한 요소들 여러가지가 자행되거나 당연시 되고, 올바른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적, 영적, 사회적 퇴행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1) 1960 년대에 시작된 성해방 운동과 성적 노출과 성행위를 공중 매체에서 노골적으로 방영함으로써 폐퇴한 성도덕을 당연시 하는 풍조

2) 국가의 기본 이념, 헌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풍조
3) 부모와 자식간의 이간 및 대화 단절 풍조
4) 이혼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
5) 무분별한 성 자유화로 인한 태아 유기 및 낙태를 조장하는 생명 파괴 정책과 문화
6) 무분별한 폭력과 그 우상화
7) 정당화 되지 않은 전쟁들을 통한 국가 폭력과 군인들의 희생
8) 마약 사용의 보편화를 통한 정신적 파탄
9) 예술과 영화 등 문화 전반에 확산된 사탄 숭배 풍조
10) 보수 전통 신학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현대 신학의 확산
11) 각급 학교에서 창조론 대신 진화론을 진리인듯 강요하는 잘못된 교육
12) 록 음악 등 사탄적 요소들의 교회 침범과 정복
13) 동성애와 동성 결혼 및 성전환 자유화를 통한 창조 질서의 파괴
14) 순수한 복음 대신에 물질적 축복을 전파하는 소위 번영 신학/복음의 확산
15) 지식층과 고등 교육기관을 통한 공산주의의 미화 및 확산
16)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과대한 빈부 격차와 부를 숭앙하는 풍조 확산
17) 인종간 무조건적 증오를 정당화 하는 풍조 확산
18) 아동 성애, 인육의 의약품화 및 인신 제사 및 공양 폐악의 확산
19) 인신 매매 네트워크의 확산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며,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 국가에 큰 혼돈과 무질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며, 이러한 풍조들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격려하며, 확산시켜 나아가는 무리들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다분히 우상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방해 요소가 됨을 미리 경고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신들을 멀리하여 분리된 생활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거룩하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축출될 것입니다.

> *[고린도후서 6:16-18]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7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의 모범과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모범을 상고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 입어 매일 자신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킴으로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 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보상에 참여하여라"는 칭찬과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